



사랑나누기

엄마의 사랑으로 크는 양지의 새싹들

하늘은 짙은 구름으로 낮게 깔렸고 눈이 내렸다. 양지동산 지붕위에도 눈이 덮였다. 그러나 눈 속에서도 양지동산의 '새싹들'은 아름다운 꽃을 꿈꾸며 밝고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다. '엄마의 사랑'이 그들을 따뜻하게 비추고 있기 때문이다. 48명 자식들의 엄마는 자신의 존재를 묻어둔 채 음지없는 양지동산을 만들었다. 허름하지만 훈훈한 사랑이 가득한 곳, 양지동산은 언제나 '봄'이다.

상계동 수락산 자락 양지동산 가족

그들은 고아가 아니다. 출생의 원인은 따지지 말자.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 엄마가 있다는 사실이다. 그들은 엄마의 너른 가슴을 보듬고 상계4동 수락산 산자락 끝에 마련된 보금자리에서 건강하고 활달하게 살고 있다.

그런데 그들의 엄마가 자리에 누웠다. 지난해 11월 비로 인해 한 쪽이 무너진 집을 복구하다가 허리를 심하게 다쳤기 때문이다. 나이는 속일 수 없는지 짐체 잘 낫지 않는다. 아이들은 그래도 뭐가 그리도 즐거운지 정신없이 방안을 뛰어다니고 엄마는 그런 아이들을 흐뭇하게 바라볼 뿐이다.

"이 곳은 '꽃'을 키우는 곳입니다. 출생

이 불행했다고 해서 미래도 불행할 수는 없습니다. 사회는 비뚤어진 시선으로 아이들에게 불행을 강요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아이들을 보낼 수는 없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밝은 사회를 이끌어갈 새싹들이니까요."

자기를 던지며 키워낸 2백여 명의 자식들

'엄마' 한중임 씨가 '양지동산'을 세운 것은 6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독실한 기독교 집안에서 자란 그는 아버지의 유언에 따라 버려진 아이들의 엄마가 됐다. 그의 선친은 50년대 피혁회사로 이름을 날리던 '철성 피혁'의 소유주였다.

물려받은 재산으로 그는 양지동산을 세웠고 돌보는 이 없는 아이들을 자식으로 삼았다. 35년동안 그가 키워낸 자식만도 2백여명. 지금은 48명의 자식들이 그와 함께 가족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

그는 티없이 해맑은 아이들의 표정을 보며 '자신의 존재를 잊기'로 했다. 아이들이 양지의 행복을 꿈꾸며 밝게 성장할 수 있도록 자신을 아이들의 삶 속에 던졌다. '내가 너희들의 엄마란다.' 엄마의 깊은 사랑을 받으며 아이들은 예쁘고 바르게 자랐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표창장을 받고 공부를 잘 해 장학금을 타면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내 자식이 남보다 낫기를 바라는 엄

마의 마음이겠죠. 그러나 아이들이 해달라는 데로 다 해주지 못하는 것이 항상 마음에 걸립니다.”

양지동산의 가족들은 연령층이 다양하다. 어린 아이부터 국민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직장인 등이 한데 어우러져 있다. 아이들은 결혼을 해서 독립을 할 때까지 양지동산에서 엄마에 대한 애정과 형제애를 키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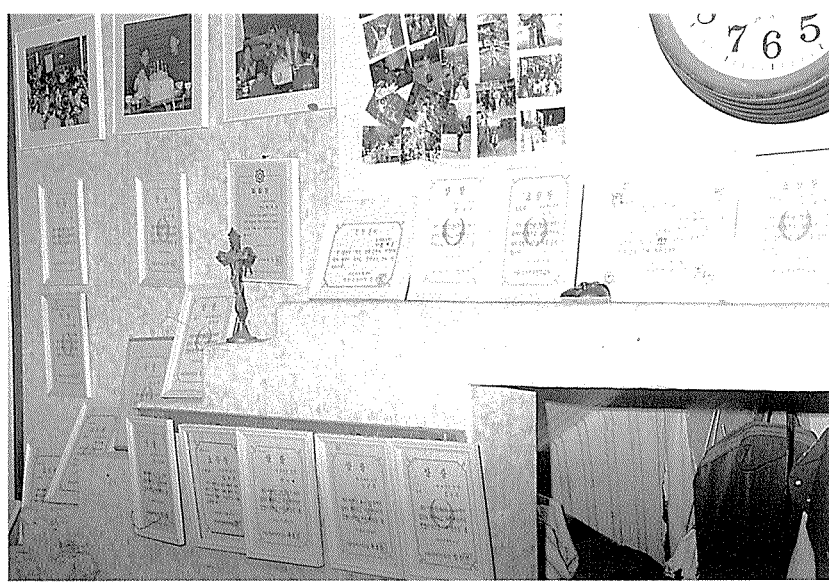
아버지의 유산으로 많은 자식들의 뒷바라지를 할 수 있었지만 몇 년 전부터는 그마저 바닥이 나 버렸다. 그후 그는 생계를 위해 더욱 억척스럽게 생활했다. 주위에서는 정식 사회복지법인으로 등록할 것을 권유했지만 그는 사양했다. 법인으로 등록하면 각종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엄마의 사랑’이 아이들에게 오롯이 전달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보육원 원장’ 보다는 ‘아이들의 엄마’ 이길 원했던 것이다.

“아이들이 자라 결혼해서 분가한 후 가족의 울타리를 다시 찾을 수 있도록 보금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더라도 ‘고아원’이라는 이름을 내걸 수는 없었습니다.”

암 투병, 집 붕괴... 시련은 많지만 절망은 없다

양지동산가족들은 마당에 터를 잡고 콩나물을 재배하고 있다. ‘양지동산 콩나물’은

방안 가득 걸린 상장들. ‘엄마 한중임 씨는 ‘엄마의 마음’ 그대로 이것들을 볼 때면 마음이 흐뭇하다.



무공해 재래식으로 기른 것으로서 10명 이상씩 모아서 신청한 사람들에게 판매된다. 이외에도 순두부와 청국장, 제주도 판매된다. 쭉쭉 자라는 콩나물에 물을 주면서 아이들은 미래의 꿈을 무럭무럭 키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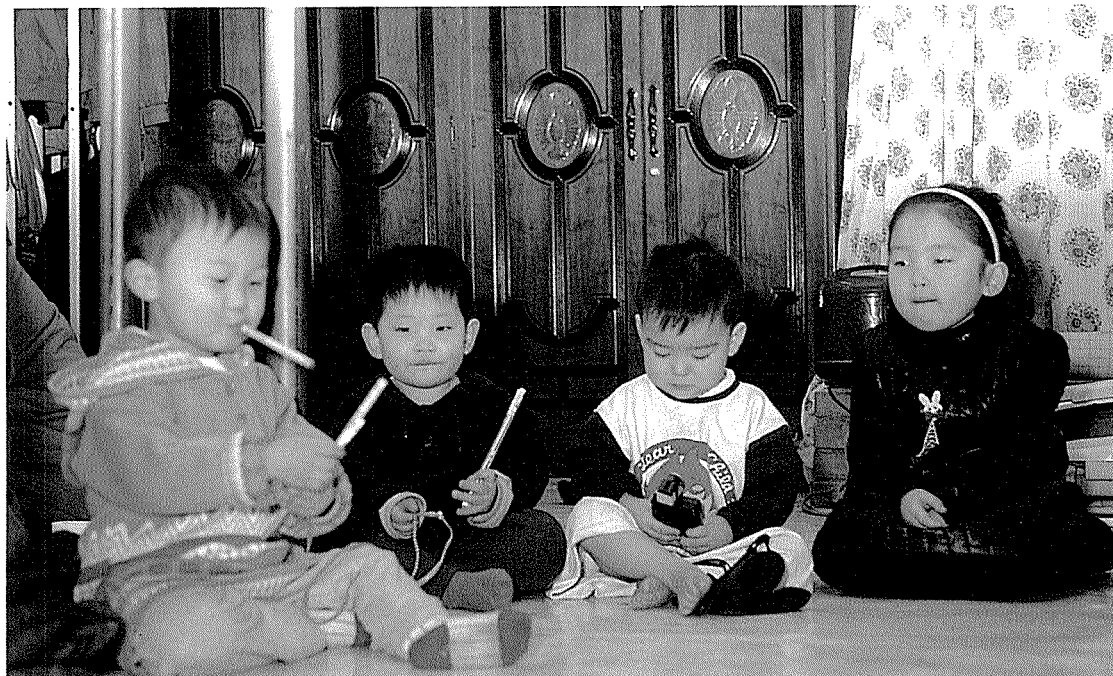
양지가족이 콩나물 재배를 시작한 결정적인 계기는 한중임 씨가 3년 전 암 선고를 받으면서부터다. 물려받은 재산도 거의 메말라가고 있던 터에 닥친 시련은 벽차기만 했다. 주위의 도움도 있었지만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양지가족들은 그대로 주저앉지 않았다. 생활비와 학교 등록비 그리고 병원비 등을 스스로 충당하기 위해 이 일을 시작했다. ‘콩나물’은 절망을 밀어내고 희망을 건져올리는 두레박과 같은 것이었다.

94년 한중임 씨는 암수술을 받았고 암과의 힘겨운 싸움을 계속했다. 통증이 몰려와

잠 못 이루는 밤이면 어린 자식들의 티없이 뺨짝이는 눈망울들이 더욱 선명하게 떠올랐다. ‘이대로 쓰러질 순 없다.’ ‘하늘은 크게 쓰시려는 자에게 더 많은 시련을 주신다’고 생각하며 그는 꺾듯이 견뎠다.

그러나 시련은 또 다시 찾아왔다. 건강이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난해 11월 비로 무너진 집을 수리하다가 허리를 다친 것이다. 자리에 눕고 보니 걱정이 태산 같았다. 새학기 아이들의 등록금과 집수리 비용이 큰 문제였다. 자급자족을 원칙으로 꾸려온 살림이었지만 이번 만큼은 혼자 감당하기엔 너무 벅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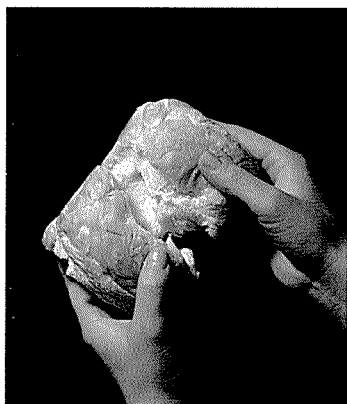
그는 ‘또 다른’ 시련을 이겨내기 위해 주위 여러 단체의 도움을 얻어 ‘차선 행사’를 벌이기로 했다. 이 행사는 3월 23일 노원구 민회관에서 조선일보, 기독교방송 등의 후



양지동산의 새싹들. 엄마의 따뜻한 햇볕 아래 건강하고 밝게 자란다.

사랑나누기를 함께 할 후원자를 찾습니다

본지는 훈훈한 빵내음이 사회 곳곳에 퍼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사회의 어려운 이웃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빵 한 조각을 나누는 마음이 어우러진 사회, 그 사회는 분명 건강합니다. 독자 여러분의 조그만 지원이 건강한 사회를 앞당길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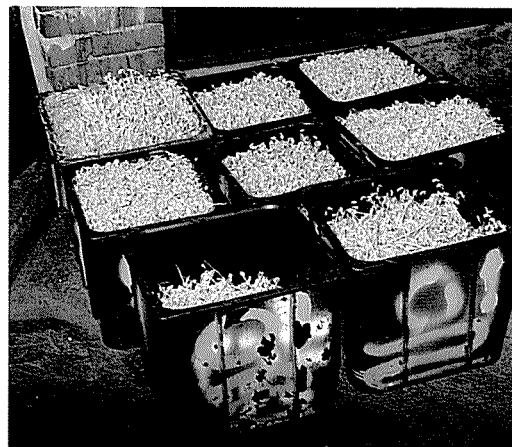
후원의 종류는 이렇습니다

- 일반회원 매달 2,000원 이상의 후원금을 보내주시는 분
- 특별회원 매달 10,000원 이상의 후원금을 보내주시는 분
- 천조회원 비정기적 또는 일시적 기부금
- 봉사회원 자원 봉사자

이렇게 후원하시면 됩니다

- 기간은 1년 이상
 - '양지동산 가족'의 후원회원이 되고자 하시는 분은
1. 아래 회원신청서에 주소, 성명, 전화번호 등을 기재, 월간 베이커리 독자엽서 뒷면에 부착해 보내주시고,
 2. 후원금은 다음 계좌로 입금하시면 됩니다.

- 온라인 계좌번호
 - 우체국 : 012104-31-0324095 한중임
 - 국민은행 : 353-24-0058-421 한중임
 - 신한은행 : 37304-3093609 한중임
 - 중소기업은행 : 003-13-0052-800 한중임
 - 주택은행 : 4664-02-85-14460 한중임
- 양지가족 콩나물 구입 안내
 - 순두부 1모 : 1,000원
 - 콩나물 1봉지 : 1,000원(400g)
 - (3관 1통 : 7,000원, 5관 1통 : 12,000원)
 - 10명 이상 모아서 신청
- '양지가족' 주소
 - ☎ 139-204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4동 산154번지 34통 9반
 - ☎ 939-7123



양지가족이 재배하고 있는 콩나물. 절망을 밀어내고 희망을 건져 올리는 두레박이다.

원으로 열릴 예정인데 양지가족들의 맑은 모습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엄마의 햇살 듬뿍 받으며 무럭무럭 키우는 꿈

“생명은 누구에게나 소중하고 아름다운 것이지요. 하느님이 인간에게 생명을 주신 것은 단지 자기 몫의 생명만을 가꾸라고 한 것은 아닙니다. 자기 몫을 조금 떼어 고통 받는 생명과 함께 하라는 것입니다. 어느 곳 이든 아름다운 생명의 꽃이 활짝 폈을 때 저 같은 '엄마'가 더 이상 필요없겠죠.”

‘음지에서 양지로 나온 새싹들’, 양지동산의 아이들은 엄마의 햇살을 듬뿍 받으며 단단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다. 새싹들이 자라 피우게 될 꽃은 쉽게 꺾이지 않을 것이다. 집 입구에 있는 표지판에 뚜렷하게 쓰여 있듯이 ‘어머니 한중임’ 씨가 주는 ‘사랑의 거름’을 듬뿍 받기 때문이다.

“여기는 모든 역경과 고난을 이겨내고 내일의 밝은 사회를 이끌어갈 새싹들이 자라는 동산, 바로 양지동산입니다. 어머니 한중임”

(글/손인수)

후원신청서

성명			
성별	남	여	연령
주소			전화
직장			전화
후원금			후원단체
송금은행			
기타			

알림

양지가족을 위한 자선의 밤

주최 : 양지가족

후원 : 국민일보, 한국일보, 조선일보,

기독교방송, 극동방송, 문화방송 장학회

특별출연 : 투투(가수), 유통(탤런트),

윤국일(KBS 희극인), 장사익(소리꾼)

일시 : 1996년 3월 23일(토) 15:30~17:30

장소 : 노원구민회관